

# 협회소식

## 본회 창립16주년 기념식 및 송년간담회 개최

—신구범 축산국장에게 감사패 전달



본회는 구랍 19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본회 창립16주년 기념식 및 임원·지부장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영의원(민자, 영주·영풍)과 70여명의 임원·지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전동용회장은 그간의 의욕적으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양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구범 축산국장과 본지 발행에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주)카익의 이치한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회장은 또 지부활동이 활발하고 협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경기도 용인지부와 양평지부, 안양시흥지부, 강원도 철원지부, 충북 제천제원지부, 충남 서산태안지부, 전북 정주정읍지부, 광주지부, 경북 영천지부, 경남 창원지부, 제주지부 등 11개 지부에 모범지부 표창패를, 제1검정소 신봉식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강문희 전강화지부장등 14명의 전직지부장에게는 지부장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6년 간 협회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전제한후 「그러나 우리 앞에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 인력난, 폐수 처리문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히고, 「창립 16주년을 계기로 전양돈인이 보다 일치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영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발법에 자조금 등이 명분화 될 수 있었던 것도 양돈협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협회의 활동을 치하하고, 「축산원 자체 관세, 부가세는 전액 축산부문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지부장들은 노영한 전부이사로부터 최근의 양돈업계 동향과 협회의 주요활동사항을 보고받고 91년도 협회 회무추진방향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을 대신해 나온 김경남 축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91년도 양

돈정책방향」에 대해, 환경처 신현국 오수처리과장으로 부터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김경남과장은 「91년도에 돼지고기 연동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축산법을 개정하여 가격안정대제를 실시하며, 도축장을 경제권역별로 통합해 지육과 부분육유통체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91년 하반기부터 서울3개 도매시장부터 도체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과장은 「91년도에 축산분뇨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나 규제보다는 지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법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 양축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해 국고를 지원, 시군단위로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현재 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축산폐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소규모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는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처리도록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두 과장과 질의응답을 벌이고 기념소연을 가졌다.

### 본회 국회에 마사회 이관계획 철회 청원서 제출

#### —체육부 이관은 행정조직법 위반하는 중대 하자

본회를 비롯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3개 생산자단체는 구랍 12일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의장, 국회 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본회는 청원서에서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체육부가 경마업무를 관할도록 부처간 기능조정을 한 것은 현행 행정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행정하자라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따라서, 정부조직법 부칙에서 한국마사회법을 변칙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부칙 제8조 제4장 및 제5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밖에도 축협중앙회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기타 여러 축산관련단체에서도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서와 건의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 수입대두박 관세 인상계획 철회 요구

#### —본회 이명복부회장, 노영한전무 농림수산부 방문

본회 이명복부회장과 노영한 전무이사는 구랍 11일 농림수산부 양정국을 방문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대두박 수입관세를 상향조정 방침을 철회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두박 관세율 인상은 농민을 담보로 특정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콩재배농가를 보호하려면 대두(콩)의 관세나 식용유값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측은 내년 3월까지의 현행대로 3% 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차후에 충분히 논의한후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본회, UR농산물협상거부 서명부 농단협에 제출

#### —구랍 24일 현재 1,610명 서명

본회는 구랍 24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해 온 UR농산물협상 거부 서명작업을 1차로 마감, 서명부를 농단협과 UR공대위에 제출했다.

본회 회원중 구랍 24일까지 서명을 한 인원은 중앙회 직원을 비롯해 대구지부 등 11개 지부회원 1,610명이다.

본회 79개 지부중 나머지 지부는 현재도 계속 서명

작업을 추진중인데, 1월까지 서명부를 최종 취합하면 서명자 명단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현재까지 서명부를 제출한 지부는 다음과 같다.

□UR지부 서명부 제출 지부 명단

▲서울지부 : 66명 ▲수원지부 : 145명 ▲여주지부 : 48명 ▲당진지부 : 24명 ▲홍성지부 : 15명 ▲연기지부 : 27명 ▲천안천원지부 : 423명 ▲마산지부 : 98명 ▲울산울주지부 : 293명 ▲대구지부 : 424명 ▲청도지부 : 23명 ▲직원등 : 24명(합계 1,610명)

**본회, '91년도 양돈수첩·달력 회원들에게 배부**

본회는 구랍 17일 '91년도 양돈수첩(업무용수첩)과 달력을 제작, 회원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본회가 이번에 제작, 배부한 '91년도 양돈수첩은 25절(가로 15cm×세로 23cm), 360쪽 분량으로 본회 현황과 각 지부 주소·전화번호, 축산관련단체 주소·전화번호와 국내외 양돈관련 통계자료, 양돈농가들이 꼭 알아야 할 백신 프로그램, 경영관리지표, 메모란,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91년도 달력은 가로 35cm, 세로 38cm 사이즈, 숫자판 형태로 주요사항을 일별로 메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양돈수첩과 달력은 각 지부를 통해 전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본회, 「수입개방에 대한 양돈산업 대응 방안」책자 발간**

본회는 구랍 21일 「UR협상 타결이후 수입개방에 대한 양돈산업 대응방안」 제목의 책자를 발간, 각 지부와 관련기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4×6배판 22쪽으로 ▲국내 축산여건의 변

화 ▲UR농산물협상의 의제와 논의내용 ▲UR타결전망 ▲UR타결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UR협상과 수입개방에 대한 양돈산업의 대응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지 편집위원회의 개최**

본지는 구랍 21일 오후 3시 본회 임원실에서 90년도 마지막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찬길·정숙근·김인호·예재길 편집위원이 참석한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90년도에 발행된 본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91년도의 편집방향과 1, 2, 3월호의 편집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편집위원들은 수입개방 품목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상세한 문제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고 양돈 정책 방향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처리문제, 방역 정책, 도체등급제 제도 등을 심도있고 현장에서 현실성 있는 문제를 다루어 양돈가들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천지부장에 성진경씨 선출**



성진경 서천지부장

서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개인사정으로 지부장직을 사임한 한상준지부장 후임에 성진경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이날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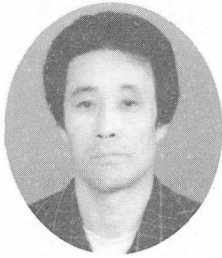
▲지부장 : 성진경

▲운영위원 : 두재봉, 구재천, 김국열, 강인관, 구제한,

임몽규, 박근춘

▲총무 : 노희부

### 달성지부장에 이무열씨 선출



이무열  
달성지부장

달성지부는 구랍 21일 지부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지부장에 이무열씨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새로 개편했다.

달성지부는 '91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신중한 전인지부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신중환

▲지부장 : 이무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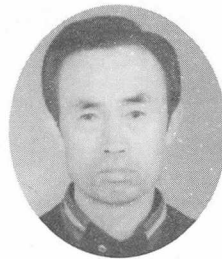
▲부지부장 : 조순재, 박배진

▲운영위원 : 조삼돌, 곽영수, 제갈외태, 표윤권, 고광석, 이은재, 윤성길, 이경생

▲감사 : 이삼재, 성이경

▲총무 : 박대득

### 진천지부장에 장형신씨 선출



장형신  
진천지부장

진천지부는 지난해말 임시총회를 열고 박상욱지부장 후임에 장형신씨(51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장형신 신임 진천지부장은 300두 규모의 태양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 협회단신 ■

이리익산지부 여직원 신규채용



한주향양

이리익산지부(지부장 : 윤주성)는 최근 한주향양(26세)을 신규채용했다. 한주향양은 원광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

진주지부 사무실 이전

진주지부(지부장 : 박만중)는 최근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다.

▲변경주소 : 진주시 중안동 16-20

▲전화 : (0591)42-0742(중전과 동일)

광양지부 사무실 이전

광양지부(지부장 : 서병호)의 사무실이 구랍 28일 아래 장소로 이전되었다.

▲주소 : 전남 광양군 광양읍 칠성리 912-13

▲전화 : (0667)762-8655(중전과 동일)